

전희준 목사님이 “기독교 교파, 한눈에 보기”에 이어 “성경, 한눈에 보기”를 출판합니다. 작년부터 올해, 헤브론 만나와 재미있는 성경을 보고 들으며 제가 조르고 즐겼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요?” 누군가 질문한다면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본서를 추천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의 숲을 조망하고, 나무의 결을 따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친절한 안내자입니다. 매우 쉽고 간단하지만 역사학자 및 신학자로서의 깊은 연구와 통찰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성도를 올바르게 목양하겠다는 배려와 열정이 가득 배어있는 책입니다. 본서를 통해 성경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헤브론 100 일 통독

내년에도 성경 100 일 통독입니다. 1월 첫째 주에 신년 특새를 마치고 1월 10일부터 4월 19일까지 진행합니다. 올해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매일 읽는 분량도 같고, 매일 순장님을 통해 카톡방에 전달될 요약 내용도 같습니다. 홈페이지 ‘100 일 성경 통독’ 메뉴에서 통독길라잡이 영상까지 찾아 보시면 올해와 모든 것이 같은 방식입니다. ‘90 일 통독’을 4년 하고 올해 ‘100 일 통독’으로 바꾸었으니 앞으로 몇 년은 더 ‘100 일 통독’일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읽었던 성경이지만 읽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0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겠지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달라진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책을 옆에 두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책 광고를 하게 되었네요. ‘성경 한눈에 보기:구약’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라는 것밖에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출판사에서 초신자를 대상으로 쓴 책이 너무 두꺼우면 안된다고 해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구약을 먼저 출간합니다.

‘재미있는 성경’과 ‘헤브론 만나’의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헤브론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완성된 책이기에 특별히 출판사에서 30%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이 배송비네요. 20 불입니다. 다음 주까지만 사무실에서 신청을 받아 단체로 주문하겠습니다.

2021. 12. 19. 전희준 목사 올림